

어촌어항지역 수산계 고교 장학생 25명 선발 한국어항협회, 장학증서·장학금 수여

한국어항협회는 지난 8월 25일 2004년도 어촌어항지역 수산계 고등학교 장학생을 선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해당학교로 전달했다.

이번 어촌어항 장학생 선발에서는 인천 해양과학고 3명, 충남해양과학고 1명, 완도수산고 2명, 압해종합고 3명, 여천실업고 3명, 경남해양과학고 2명, 구룡포종합고 3명, 포항해양과학고 3명, 울릉종합고 3명, 제주관광해양고 2명 등 전국 수산관련 고등학교 우수학생 25명이 선발되었다.

한국어항협회는 수산계 고등학교 또는 수산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학교 수산관

련학과 재학생으로 수산업경영인 자녀이거나 수산분야 진로를 희망하여 동일학과 전체성적 평균 50% 이내인 학생을 수여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장에게 추천을 의뢰, 심사를 거쳐 25명을 확정했다.

한국어항협회가 수산분야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각 학교와 재학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도 어항어촌장학생 명단〉

· 인천해양고 자원환경과 2년 임흥섭, 동력기계과 2년 박지수, 식품가공과 3년 최원준, · 충남해양고 냉동공조과 3년

한호빈, · 완도수산고 동력기계과 1년 윤일한, 수산전산과 2년 김하림, · 압해종합고 자영수산과 1년 김재현, 2년 김재명, 3년 김태영, · 여천실업고 수산양식과 2년 최수진, 3년 김대일, 3년 이유리, · 경남해양과학고 자영해양생산 1년 이진우, 해양기술 1년 김보수, · 구룡포종합고 해양생산과 1년 오정윤, 2년 최선홍, 동력기계과 3년 박상태, · 포항해양과학고 전자통신과 1년 권영보, 동력기계과 1년 장정섭, 김민규, · 울릉종합고 해양생산과 2년 김규진, 박효승, 이진희, · 제주관광해양고 해양산업과 1년 천성환, 박용철 이상 25명.

배평암 회장 일본어항어장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어항협회 배평암 회장은 일본 전국어항어장협회로부터 내달 14일 일본 시즈오카시에서 열리는 제56회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초청받아 한국측 귀빈 자격으로 참석한다.

일본 전국어항어장대회는 중·참의원 농림수산위원을 비롯 정부각료, 일본수산회장, 그리고 각 현 어항관계자 등 약 3천여명이 참석하는 일본 최대 수산관련 대회로서 어항어장 정비, 어촌 생활 환경 정비 등 수산기반 관련 대책이 논의되는 자리다.

배평암회장은 13일 도일, 대회전야 환영리셉션과 전국어항어장대회에 참석, 일본 수산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관내 후쿠대 어항을 시찰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배평암회장은 이번 대회에 참석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어항기술의 발전과 한국어항협회 발전에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야노 테루시게 전 일본 전국어항협회 회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어항도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항건설공사에도 실적공사비 적산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령안 공포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어항 및 항만건설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8월말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연구용역은 기존 항만 수행사업의 공종별 실적공사비를 취합, 분석해 이를 근거로 한 공종별 예가 결정기준을 도출하고 세부 공종 가운데 실적공사비 적산 적용이 가능한 공종들을 선별하기 위한 것이다.

제17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 9월 4일까지, 30명 선착순 모집

한국어항협회는 제 17차 해외 어촌어항 조사단 파견 계획을 수립,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어촌어항관련 공무원, 시공업체, 용역업체, 수협임직원, 협회 회원 등으로 30명 선착순이며 신청 마감은 9월 4일까지이다.

이번 조사단은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박 10일 동안 일본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지의 주요 어항들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2박3일 동안 키사와타어항, 사노어항, 마이쯔르 어항을, 유럽에서는 6박7일 동안

프랑스의 칼레어항, 벨기에의 브뤼헤어항, 네덜란드 쉬베니겐어항 등을 시찰하게 된다.

한국어항협회는 해외선진국의 어항어촌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실태를 직접 두루 살펴봄으로써 어촌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조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제16차에 이어 제17차를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다.